

오늘 경륜 14경주 '선수 출신 vs 비선수 출신' 빅뱅



이명현 노태경 김현경 인지환 박병하 조봉철 장보규

“경륜은 출신순이 아니잖아요”

국가대표 출신 이명현·노태경 기량 압도적 경륜 10년 경력 김현경...노련함으로 승부

비선수 출신 대표 인지환 올해 1분기 MVP 박병하·조봉철·장보규도 만만찮은 실력자

‘선수 출신 vs 동호인 출신.’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보부가 11일 광명스포돔에서 흥미로운 이벤트 경기(14경주)를 연다. 사이클 선수 출신과 비선수 출신이 승부를 겨룬다.

스포츠에서 순수한 아마추어 출신이 오랫동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엘리트 선수를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륜은 다르다. 경륜 선수는 데뷔에 앞서 훈련원에서 조종술과 게임운영을 교육받는데, 이때 비선수 출신도 개인의 노력과 열정에 따라 선수 출신과의 기량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또 경륜은 다른 스포츠와 달리 레이스의 작전과 연대 등의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 이 때문에 경륜은 선수 출신과 비선수 출신이 예측불허의 승부를 펼친다.

●사이클 선수 출신 ‘국가대표 자존심 지키다’ 이번 이벤트 경기에 선수 출신 대표로는

이명현(29·16기), 노태경(30·13기)과 김현경(32·11기)이 나선다. 주목할 선수는 단연 ‘황제’ 이명현이다. 사이클 국가대표(2003, 2007-2008) 출신으로 대항경주에서 지금까지 8회나 우승했다. 한 해의 챔피언을 가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대회에서도 최근 2년 연속(2011, 2012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올해 성적은 12번 출전에 1차 6회로 승률 50%.

자기 관리가 철저한 노태경도 사이클 국가대표(2002-2003) 출신이다. 2006년 경륜에 입문해 2009, 2010시즌 2년 연속으로 최다승 선수에 올랐다. 대항경주에서 5번 왕좌에 올랐고 올해 승률은 61%.

올해로 경륜 10년째인 김현경 선수는 지난해 일간스포츠배 등 대항경륜을 세 차례 제패했다. 올해 승률은 47%.

●비선수 출신 “경륜을 경력으로 타나?”

비선수 출신 대표는 ‘철강’ 인지환(30·17기)을 비롯 박병하(32·13기), 조봉철(34·14기), 장보규(39·1기) 등 4명이다.

올해 전성기를 맞은 인지환은 사이클 동호인 출신으로 2009년 비선수 출신 최초로 경륜훈련원을 수석 졸업했다. 지난해 그랑프리 대회 때 이명현에 이어 2차에 그쳤지만 올해

는 1분기 MVP에 올랐다. 3월 스포츠저술배 대항경주를 제패하는 등 12번 출전에 10번을 우승했다. 83% 승률이 상승세를 증명하고 있다.

박병하는 출전 선수 중 올해 가장 승률이 높다. 15회 출전에 13번을 우승, 승률이 87%다. 기량은 인지환과 이명현에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과 동료선수들의 평가다.

조봉철은 대학시절 철인3종 동호회 선배를 통해 경륜을 알게 됐고 2007년 입문했다. 180cm의 큰 키와 잘생긴 얼굴로 ‘경륜의 꽃미남’으로 불리며 2009년 앙드레김 패션무대에 서기도 했다. 실력도 출중해 2011년 최다승상을 수상했다. 올해 승률은 33%.

유도선수 출신인 장보규는 불혹을 앞둔 나이지만 성실한 훈련으로 변함없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올해 승률은 32%.

경륜경정사업본부 관계자는 “596명의 경륜등록선수 중 비선수출신은 100여명 남짓”이라며 “비선수 출신에게는 희망을, 선수출신에게는 자극을, 그리고 경륜팬들에게는 이색 즐거움을 주기위해 이 경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제1회 말산업 자격시험 인기...총 861명 중 19명 합격

‘청년실업, 말산업 자격증으로 뚫는다.’

KRA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른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실시한 ‘제1회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합격자 1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마사회는 말조련사 과정에 279명이 응시한 것을 비롯해 장제사(면자 제작·부착 기능인) 34명, 재활승마지도사 548명 등 총 86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9%로 가장 많았다. 20대들은 재활승마지도사와 말조련사를 선호했다. 이어 40대가 27%, 30대가 23%로 뒤를 이었다. 직업군별로는 말관련 종사자가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회사원 8%, 교육계 4% 등이 뒤를 이었고 특정한 직업을 갖지 않은 학생 등 일반인도 25%에 달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말산업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으로서 시험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 합

격률이 높지 않았다”

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산업 자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일반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말산업 국가자격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말산업 분부 산하에 자격검정센터를 신설해 말산업 국가자격 직무분석, 모의시험, 표준교재 개발을 전담해왔다. 제2회 시험은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과 교육 과정은 말산업 종합 포털 사이트 호스피아(http://www.horsepia.com)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재활승마지도사 해 말산업 국가자격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말산업 분부 산하에 자격검정센터를 신설해 말산업 국가자격 직무분석, 모의시험, 표준교재 개발을 전담해왔다. 제2회 시험은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과 교육 과정은 말산업 종합 포털 사이트 호스피아(http://www.horsepia.com)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경주 승군 걸려있는 9굿캐피털...축마로 짬!

Table with 2 columns: 추천마권, 4경주, 9경주, 10경주. Values include 9-2, 1-4, 9-7, 3-8, 8-11, 7.

●제4경주 1000m

국내산 6군 기록마들 간의 접전 구도다. 기록마 편성이지만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나 고배당은 기대하기 어렵다. 9굿캐피털이 이번 경주에 3차 승군 조건이 걸려 있다. 직전 경주에서 보여준 전력만 발휘한다면 승군 가능성이 커 축마로 추천한다. 후착유력마는 단독선행이 유력한 2티보잉이 공백이 적음을 마쳐 일감이다. 1머시엔메르시와 늑등에서 가능성을 보였다 4어나더사이닝이 도전세다.

추천마권: 9굿캐피털 - 2티보잉 1머시엔메르시 4어나더사이닝

●제9경주 1800m

혼합 2군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인기마들의 접전 구도다. 7서피셔트예비티스 3롤렉트더업 8스트라디오토 9물안개 2찬기파랑 1금준이 등 6마리로 입상권을 압축할 수 있다. 안정

적인 축마는 7서피셔트예비티스다. 가파른 상승세에다 거리감까지 마쳐 고의적으로 승부회피만 하지 않으면 입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후착유력마는 후입력이 좋았던 3롤렉트더업을 눈여겨 봐야 한다. 또 근성을 갖춘 8스트라디오토와 9물안개도 무시해선 안된다. 2찬기파랑이 선행으로 이번 노련 등.

추천마권: 7서피셔트예비티스 - 3롤렉트더업 8스트라디오토 9물안개

●제10경주 1800m

국내산 3군 핸디캡으로 치러진다. 인기마와 북방마 간의 전력 차이가 크지 않아 이번 가능성이 높다. 입상가능마로는 1파워러너 6바다돌풍 7카퍼레이드 8해방동이 10함성질주 11뉴마이트 14브리프드림 19워너런더. 축마를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근성이 가장 나은 8해방동이 안정적이다. 후착권은 안겟속이다. 앞선이 그다지 강하지 않아 역습을 노릴 10함성질주와 11카퍼레이드는 기본으로 고려해야 하고 선두권이 버티는 전개라면 14브리프드림과 16팩스코다.

추천마권: 8해방동 - 10함성질주 7카퍼레이드

경마문화 전문위원 ARS 060-701-6013 SMS 060-604-0305

3경주 투지 불타는 3뉴에이지 자력입상 충분

유준상의 토요 복병마

- 2경주 2마리카 주행심사에서 걸음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며 끝걸음을 남기고 통과했다. 동반 훈련으로 끈기 보강했고 탄력이나 몸상태가 매우 좋아 보여 승부가 가능하다.
●3경주 3뉴에이지 강구보를 길게 끌어주며 지

구력을 보강했다. 스스로 뛰고 싶어 하는 투지도 직전 경주보다 확실히 나아져 충분히 자력 입상이 가능하다.

●6경주 6최충범이 동반훈련을 병행하며 전력을 키워왔다. 힘이 차면서 스피드감도 좋아졌고 탄력이나 상태도 나아져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bong82t

Main table containing race results for Seoul and Jeju. Columns include race number, horse name, jockey, trainer, and performance indicators like '승' (win), '준' (2nd), '3위' (3rd), etc.